

알페스→딤페이크...“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연예계 경악

국민청원 올라와 공론화
“팬문화의 심각한 변질” 추악
“상품 취급 ‘과도한 소비권력’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수위가 날이 갈수록 과도해지면서 대중음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여성 아이돌에 대한 성폭력과 닮은 ‘딤페이크(Deepfake)’, 남성 아이돌을 성노리개로 삼는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로 인해 기획사와 아이돌 당사자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딤페이크와 알페스 모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아이돌의 피해가 크다. 딤페이크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특정 부위 등을 합성한 편집 영상을 가리킨다. 특히 수위가 높은 포르노 영상 등 음란물에 여성 아이돌 얼굴을 합성하는 경우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면 등이 온라인에 퍼지고, 이를 접한 걸그룹 멤버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아이돌이 피해자임에도 이들의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기사 댓글을 등을 성희롱하고 능욕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영상들이 불법으로 팔리고 있다.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여성 아이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면서 “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그 친구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여성 아이돌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다. 남성 아이돌의 목소리 등을 덧입히는 ‘불법 딥보이스’도 다수 떠돌고 있다. 특히 남성 아이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알페스다. ‘리얼 퍼슨 슬래시(Real Person Slash)’의 줄임말로, 남성 아이돌을 성적대상화하는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 처음에는 주로 여성 팬들이 좋아하는 남성 아이돌을 주인공 삼아 만든 팬픽션 형태로 출발했다. 초반에는 소수의 마니아 문화로 취급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변태적 성관계 묘사, 적나라한 성적 표현 등으로 인해 이 역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다. 일일이 거명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인기 남성 아이돌이 대상이다. 최근 래퍼 손삼바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페스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그는 “알페스, 힙페스(힙합과 알페스의 합성어), 딤페이크를 합리화, 옹호하며 깨끗하게 소비하는 사람은 ‘음지문화’가 아니라 ‘성범죄’를 즐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르고 저지른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뿌리 뽑을 수는 없어도 그들이 부끄러워 숨고 사회가 경계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팬문화의 심각한 변질...인격존중 아닌 상품 취급 폐단 알페스는 팬 문화의 심각한 변질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팬픽은 1세대 아이돌이 탄생한 시기부터 함께 했다. 팬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 초기에는 기획사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팬픽 전문 작가도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팬픽에 아이돌에 대한 동경이 아닌 빼놓아진 욕망이 투영되는 순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최근 남성 아이돌들을 심한 성적 노리개로 대하는 알페스가 그것이다.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아이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상품 취급을 하면서 벌어지는 폐단”이라고 진단했다. 아이돌 관련 상품을 다량으로 구입하며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도한 소비권력’의 왜곡된 분출이라는 얘기도 있다. 실제 일부 하드코어 팬들은 알페스가 ‘놀이 문화’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분야에나 있는 ‘음지 문화’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음지문화라고 해서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이 절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청원진행중 —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딤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참여인원 : [255,840명]

카테고리	인원/성평등	청원시작	2021.01.13	청원마감	2021.02.12	청원인	kakao-***
------	--------	------	------------	------	------------	-----	-----------

가요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아이돌이 성폭행까지 당하는 수준의 팬픽은 팬픽이라 부를 수 없다”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자신들이 아이돌 문화를 구매하고 소비해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뻔뻔한 태도다. 일부 알페스 생산자들은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획사 관계자들은 강경 대응을 했다. 팬한 불똥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일부 양심을 품은 팬들이 사소한 일을 과장해서 안티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과장이 돼 우리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기부와 선행 등 K팝 팬문화가 국내외

성숙해지는 모습을 선보여왔는데, 일부 왜곡된 팬들의 행동으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법적 조치를 포함 강경대응을 준비하는 기획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에서는 여성 아이돌이 대다수 피해자인 딤페이크, 남성 아이돌이 주로 피해자인 알페스를 이분법적인 성별로 나눠 남녀 대결을 조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신인 아이돌 그룹 데뷔를 준비 중인 기획사 관계자는 “일부 본질을 흐리는 네티즌의 태도도 추악해가 마친가”라면서 “이건 아이돌 문화가 피해를 입는 걸 넘어 명백한 사회적 문제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K팝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 멍들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

봉준호 감독, 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장...한국 감독 최초

오는 9월1일부터 11일까지 개최

봉준호 감독이 오는 9월 열리는 베네치아(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한국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측은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봉 감독을 제78회 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봉 감독은 영화제 측을 통해 “베네치아 영화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아름다운 영화의 전통에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며 “심사위원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영화광으로서 영화제가 선정한 모든 훌륭한 영화들에 감탄하고 박수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진정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알베르토 바르베라 예술감독도 “봉 감독이 심사위원장 제안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위대한 한국 감독은 오늘날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진정성 있고 독창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한명”이라며 “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영화 감독에게 심사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베네치아 영화제가 전 세계 영화를 포용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봉 감독은 경쟁 부문의 황금사자상(최우수 작품상), 은사자상(최우수감독상·심사위원상) 등을 심사하게 된다. 제78회 베네치아 영화제는 오는 9월1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며, 시상식은 마지막 날인 9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베네치아 영화제는 칸,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힌다. 봉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지난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SM, 새 보이그룹 만든다...글로벌 오디션 개최

3월31일까지...2002년~2008년 출생 남자·전 세계 누구나 지원 가능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NCT 등 글로벌 인기 아티스트를 배출한 SM엔터테인먼트가 새로운 남자 그룹을 위한 글로벌 오디션을 실시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16일 새 보이그룹을 만들기 위한 ‘2021 에스엠 뉴 보이 그룹 오디션(SM NEW BOY GROUP AU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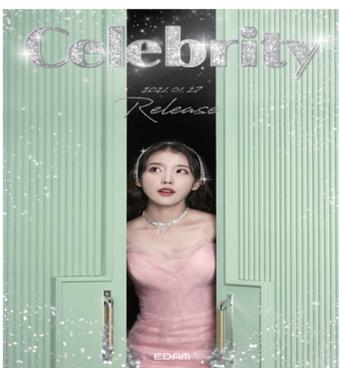
인으로 진행한다. 더불어 노래, 댄스, 개인 특기 등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SM의 새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SM 공식 오디션 홈페이지 및 SNS 계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아이유, 신곡 ‘셀러브리티’ 27일 공개

8개월 만에 컴백

‘음원권’ 가수 아이유가 8개월 만에 컴백한다. 15일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오는 27일 신곡 ‘셀러브리티(Celebrity)’를 공개한다. 아이유의 신곡은 지난해 5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와 협업한 ‘에잇’ 이후 처음이다. 음원 발매에 앞서 이날 티저 이미지를 공개

했다. 사진 속 아이유는 유명 인사라는 뜻의 ‘셀러브리티’라는 곡명에 걸맞게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면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아이유의 이번 신곡은 정규 5집의 선공개곡으로 눈길을 끈다. 이담은 “아이유가 처음 시도하는 경쾌한 팝 사운드의 곡으로 변화된 음악적 색깔을 담아 또 다른 매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뉴스



김종국·전소민, ‘2020 APAN 뮤직 어워즈’ MC

오는 24일 오후 8시 개최

가수 김종국과 배우 전소민이 ‘2020 APAN 뮤직 어워즈’에서 MC로 호흡을 맞춘다. ‘2020 APAN 어워즈’ 측은 15일 ‘2020 APAN 뮤직 어워즈(MUSIC AWARDS)’ MC로 김종국과 전소민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PAN 어워즈’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주최·주관하고 웨이드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전 채널 통합 드라마 시상식인 ‘2020 APAN 스타 어워즈’와 ‘AWARDS’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유관단체가 인정하는 최초 통합 음악 시상식 ‘2020 APAN 뮤직 어워즈’로 구성됐다. ‘2020 APAN 뮤직 어워즈’는 오는 24일 오후 8시 시즌(Sezon)과 올레tv에서 국내 중계되며, 전 세계 200여개국에 해외 송출될 예정이다. ‘APAN 톱10’에는 강다니엘, 더보이즈, 몬스타엑스, 방탄소년단, 세븐틴, 아이즈원, 임영웅, GOT7, NCT127, TWICE(이하 가나다 순)가 선정됐다. 베스트 퍼포먼스에는 강다니엘, 베스트 아이론에는 NCT U, 베스트 올라운더에는

GOT7 JB, APAN 초이스 베스트 보컬리스트에는 김재환, APAN 초이스 뉴포커스에 이남치, APAN 초이스 글로벌 한류스타에는 ACE APAN 초이스 베스트 트랜드에는 하성운, APAN 초이스 뉴케이팝 아이론에는 위아이가 선정됐다. 지난해 10월27일부터 아이돌챔프를 통해 진행된 인기상 부문에는 국내 남자 솔로 부문은 가수 강다니엘, 국내 남자 그룹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 해외 남자 솔로 부문은 강다니엘이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 1위를 했으며 해외 남자 그룹 부문에서는 세븐틴이 차지했다. 여자 솔로 부문에서는 아이유, 여자 그룹 부문에서는 아이즈원이 차지했으며, 남자 엔터테이너상에는 박지훈, 여자 엔터테이너상에는 이달의 소녀 추가 차지했다. 올해 시즌엔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스타를 선정하는 ‘KT 시즌 스타상’에는 강다니엘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됐다. 한편 ‘2020 APAN 어워즈’는 당초 지난해 11월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한 바 있다. 뉴스

비와이·쿤디판다, 라디오 태도 논란 사과

래퍼 비와이와 쿤디판다 측이 라디오 방송 태도 논란 관련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비와이와 쿤디판다 소속사 데자부그룹은 16일 사과문을 올리고 “소속 아티스트 비와이, 쿤디판다가 15일 오후 10시에 진행되는 KBS 쿨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의 ‘본인들만’ 프로그램에 출연해 적합하지 못한 태도로 청취자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렸으며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데자부그룹은 “특히 방송을 이끌어가는 데이식스의 영케이님과 ‘키스 더 라디오’에 계신 모든 제작진분들, 데이식스의 팬분들을 포함한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불편함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을 모든 아티스트와 모든 직원들이 전부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청취자분들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고찰하게 됐다”며 “또한 미디어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점 중 저희의 잘못된 점, 반성할 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

명했다. 또 “방송 제작진분들과 DJ님 측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렸다”며 “어제의 모습으로 불쾌하셨을 모든 분들께 확실하고 진실된 사과를 위해 늦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된 점, 더불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 실망하시거나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의 기분이 조금이나마 풀리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비와이와 쿤디판다는 전날 방송된 KBS 쿨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하지만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 이들이 라디오 방송에서 보여준 태도가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쿤디판다는 방송에서 새해소원이라며 이름을 불러달라는 청취자 요청에 “하기는 싫는데”라며 마지못한 듯 이름을 불렀고,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에 “가사를 까먹었다”고 답했다. 비와이는 쿤디판다의 랩 스타일에 대해 비속어로 소개했고, 삼행시를 요청하는 DJ에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뉴스